

조달청, AI·로봇 산업 현장에서 ‘K-공공조달’ 추진 방향 모색

- AI 로봇 혁신기업 방문 및 AI 기업 간담회 개최, 현장 목소리 청취
- 서울청 MZ세대 직원들과 조직문화·업무혁신 방안 논의

백승보 조달청장은 16일 서울지역을 방문하여 AI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성장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서울·경기 지역 AI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성장 지원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AI 혁신기업 현장방문, 현장의 목소리로 조달개혁 해법 모색

백승보 청장은 먼저, ‘AI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인 (주)토록을 방문해 AI 소셜로봇 ‘리쿠(LIKU)’의 시연을 참관하고, 기업 임직원과 함께 기업의 어려움과 개선 검토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리쿠(LIKU): Like you Link you 의 약자

‘리쿠’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음성 대화와 감정 표현이 가능한 AI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어린이집, 학교, 돌봄기관, 과학관 등 다양한 공공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기업은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과 해외실증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AI 혁신제품 심사기준 현실화, 시범구매 실증기회 확대, 연구개발비 등 초기비용을 반영한 원가산정 기준 개선 등 기업의 제도개선 요구 사항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르게 변하고 있는 AI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MZ세대 직원과의 대화, 조달행정의 미래를 함께 그리다

백승보 청장은 서울청 MZ세대 직원들과 오찬 겸 대화의 자리에서, 직원들이 바라는 조직문화의 방향과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의 AI·반도체 정책과 조달행정의 역할, AI 활용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대화를 이어 나갔다.

백 청장은 “어떤 조직도 변화와 혁신 없이는 진보할 수 없고 변화와 혁신은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애정으로부터 시작된다”며 “MZ세대 직원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늘 깨어있는 조달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조달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AI 기업 현장소통 간담회, 국내 AI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

한국인공지능협회와 AI 분야 조달기업들이 참석하여 진행된 AI기업 현장소통 간담회에서는 AI업계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공조달 관련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을 매개로 한 AI 산업 성장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달청은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신속히 파악해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AI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공공조달이 AI기업의 첫 번째 시장이 됨으로써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데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AI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마중물 삼아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서울조달청 경영관리과	책임자	과 장	진송아	(02-590-8710)
		담당자	사무관	최성운	(02-590-8711)